

#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설명자료

# Disclaimer

본 자료는 (주)LG화학(이하“회사”)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외부 평가 혹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나 의견의 공정성, 정확성 또는 완결성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진술 및/또는 보장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의 정보 중 일부는 회사가 독립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부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러한 외부 자료는 위험 및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본 자료 제공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본 자료 제공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장래에 관한 회사의 예측을 반영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예측 정보는 본 자료 제공일 현재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관한 가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련 예측 정보에 의하여 예정된 바와 중대하게 다른 결과가 초래될 위험 및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 또는 포함된 정보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자료가 자료 제공 이후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도록 수정 또는 보완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사는 그러한 수정 또는 보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및 계열회사, 그 임직원 및 자문사 등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주주 또는 투자자 등이 본 자료 및/또는 그 기재 내용을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타 본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향후 경영 환경 및 중장기 계획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본 자료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매를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자료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 개최 안내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커넥트홀
3. 회의 목적사항

## ① 보고안건

- 제25기(2025.1.1 ~ 2025.12.31) 감사보고
- 제25기(2025.1.1 ~ 2025.12.31) 영업보고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②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 2-1 호 (이사회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제 2-2 호 (이사회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제 2-3 호 (이사회안)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제 2-4 호 (이사회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제 2-5 호 (이사회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 제 2-6 호 (이사회안) : 정관 정비
  - 제 2-7 호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 제 2-8 호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 선임독립이사 선임
- 제 3 호 의안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 주주제안의 건
  - ※ 제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 제 3-1 호 :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 제 3-2 호 :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 제 3-3 호 :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 제 4 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춘 선임의 건
- 제 5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천경훈 선임의 건
  - ※ 제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됨
- 제 6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LG화학 이사회 의장 서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2월 24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조화순 이사입니다.

앞으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이사회는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해 위원회 중심의 감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2021년 ESG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부터 2025년 보상위원회 신설까지, 현재 6개 위원회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경영 현안은 사외이사 중심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논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관점의 검토 절차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이사회 감독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당사는 이사회 내부의 독립적 검토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 온 데 이어, 주주 여러분의 의견 또한 이사회 논의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2023년 한국 최초 ESG Investor Day 개최, 경영진과 주주간 Engagement 확대 등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하여, 주주 여러분의 의견이 이사회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금번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을 포함해 주주 여러분이 제기하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는 주주제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안건은 이사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주주제안의 주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대효과 대비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되는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주주가치와 사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언해주신 내용들을 취지에 맞게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세부 판단 근거와 입장은 본 설명자료에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조 : p.6]

앞으로도 이사회는 투명한 지배구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27.  
LG화학 이사회 의장  
조화순

# CEO 인사말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주주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전방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전사 실적과 투자심리에 부담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당사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에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부족했던 지점과 그 원인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저수익 범용 사업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워터솔루션/ 에스테틱 사업 매각 등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창출하였고, 엄정한 CAPEX 집행과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흑자 기초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재무건전성을 높여 왔습니다.

2026년에는 과거의 Cyclical 실적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고부가 유망 사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반도체·로봇·자율주행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철저한 기술 경쟁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수익 성장 창출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당사가 수립한 세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현금흐름 흑자 기초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석유화학 사업구조 재편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술이 강한 회사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SSBR, ABS 등 고부가 Application을 지속 확보하고 Si용 반도체소재와 e-Mobility 소재 등 고기능성 수요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 Inorganic을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해 미래 파이프라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R&D를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 체계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양극재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과제와 주요 신사업 분야에는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되, 사업화 로드맵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초기 단계 과제는 지속 발굴하되, 단계별 검증과 중단 기준을 적용해 자원 분산을 최소화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또다른 성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6. 2. 27.  
LG화학 CEO  
김 동 춘



---

<b>Part 1.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b>	<b>05</b>
부의 안건 및 이사회 권고	05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 권고 의견	06
제1호 의안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0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11
제3호 의안 : 주주제안의 건	16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춘 선임의 건	17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천경훈 선임의 건	18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

---

**Part 2. 주주제안 배경에 대한 이사회 의견**

---

# Part 1

제 2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 부의 안건 및 이사회 권고

부의 안건	제안 주체	이사회 권고	참고 페이지
제1호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회	찬성	10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11
2-1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이사회	찬성	12
2-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회	찬성	12
2-3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이사회	찬성	13
2-4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이사회	찬성	13
2-5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이사회	찬성	14
2-6 정관 정비	이사회	찬성	14
2-7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반대	15
2-8 선임독립이사 선임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반대	15
제3호 주주제안의 건 ※ 제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16
3-1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반대	16
3-2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 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 의 건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반대	16
3-3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 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반대	16
제4호 사내이사 김동춘 선임의 건	이사회	찬성	17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천경훈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됨	이사회	찬성	18
제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회	찬성	20

#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 권고 의견

금번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Palliser Capital은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선임독립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 등 2건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과 함께 3건의 권고적 주주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주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는 금번 주주제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Palliser Capital의 주주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오랜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안건은 이사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주주제안의 주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안건의 경우 기대효과 대비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결론적으로 주주제안에 반대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 주주가치와 사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언해주신 내용들을 취지에 맞게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24일 다음의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 1. 조화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의장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사 이사회에서 처음 도입되는 조치로,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입니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소집/주재하여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고, 논의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합니다. 또한 필요 시 추가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의 충실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2.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경영진 중심으로 투자자 소통을 강화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사안에 대한 소통 역시 이사회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와 주주 간 거버넌스 미팅 등 구체적인 소통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와 같은 사외이사 의장 체계 및 이사회 차원의 주주 소통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이사회 검토 의견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 권고 의견

## 제2-7호.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정관 변경)의 건 [참조 : p.15]

이사회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아직 권고적 주주제안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국내 타사의 사례나 관행도 드문 상태에서 정관으로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이를 당장 정관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법령 및 관행의 정비 상황에 맞추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상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회사 및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금번 사외이사 의장 체계를 도입하였고,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주주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주주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제2-8호. 선임독립이사 선임(정관변경)의 건 [참조 : p.15]

이사회는 선임독립이사 제도의 취지가 사외이사 리더십을 통해 이사회 감독과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사외이사 의장 선임, 주주 소통 확대 계획 등 새로운 이사회 체계 도입이 선임독립이사 제도가 지향하는 핵심 기능을 이사회 운영 전반에 반영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러한 이사회 운영 체계 강화가 정관에 선임독립이사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보다, 역할 중복과 책임 구조 혼선을 줄이면서도 이사회 운영 전반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 주주와의 소통을 동시에 강화하는 보다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외이사 의장 체계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 자체 평가 항목에 독립적 의장 역할 수행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주주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제2-7호 정관변경(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안건이 가결되면 제3-1호, 제3-2호, 제3-3호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제2-7호 안건 부결 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회 입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 권고 의견

## 제3-1호. (조건부 안건)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sup>1)</sup>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참조 : p.16]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로 'ROE'<sup>2)</sup>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LG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순수 지주회사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규모 자본 투입 대비 투자 회수 기간이 상당 소요되는 제조업(특히 기간산업) 특성 상 미래 수익 창출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ROE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NAV 할인율은 기업가치와 주가 간 괴리를 설명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산정 방식이 단일하지 않고 시장 멀티플, 금리, 투자 심리, 자회사 주가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대해서도 가정과 평가 모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주요 재무지표로 설정하거나 공시할 경우 경영 성과 관리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지고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만, NAV 할인율에 대한 주주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가치를 당사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가치제고 공개 및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공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 중장기 활용계획을 밝힌 것과 같이, 이사회 차원에서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ROE 실적, 향후 개선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같이 ROE 중심의 수익 창출력 제고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주주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제3-2호. (조건부 안건)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참조 : p.16]

당사는 2025년 11월 신설된 독립적 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보수 한도 및 보상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 ROE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목표 달성을 위해, 주주 수익률과 연계된 경영진 보상 체제를 보상위원회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2026년 내 도입할 계획으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 취지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주주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NAV : Net Asset Value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

2) ROE :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주주제안 안건 관련 이사회 권고안에 대한 근거

## 제3-3호. (조건부 안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참조 : p.16]

당사는 2026년 1월 29일 공시를 통해 향후 5년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율을 약 7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유동화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 소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간 대규모 매각이 LG에너지솔루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당사 보유 지분가치와 매각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과 같은 유동화 규모 확대는 단기 주주환원 확대 효과와 달리 중장기 주주가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보유 지분 매각 대금을 미래 성장 투자, 재무 건전성 유지, 주주환원에 균형 있게 활용할 계획이며, 이사회는 이러한 균형 잡힌 자본배분 체제가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이사회에서 지분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유지분 70% 미만까지 유동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주주분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당사는 안정적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주력사업의 이익 창출력과 현금 창출력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지분 유동화 재원을 포함한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업 환경과 구조개편 일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원 활용은 2028년 전후 구간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는 시장 상황과 재무 여건,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재점검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는 기존에 공표한 점진적 지분 유동화 및 균형적 자본 배분 전략이 단기 주주환원 확대보다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주주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더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주주분들께 반대 의결을 권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다양한 주주의견을 경청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합리적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기 공시된 재무제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첫째 주, 외부 감사가 완료된 최종 감사보고서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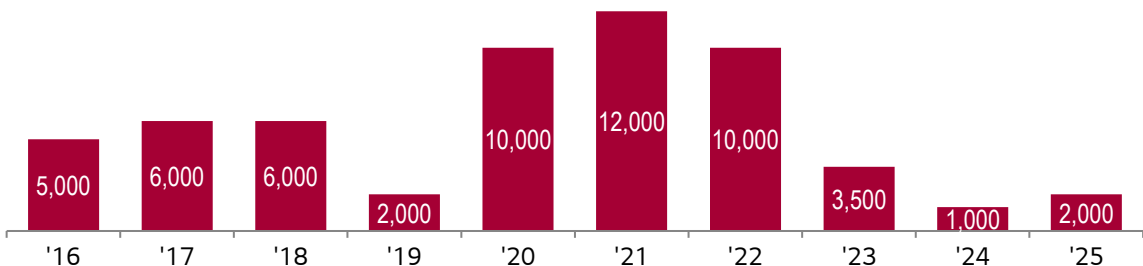
당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지분 기준, 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의 20% 이상 배당성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FY 2025는 당사 배당정책상 배당재원이 산출되지 않으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차원에서 2,000원 배당을 결정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대금의 세후 현금유입액 10%를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4대 성장동력 성과 기반 수익성 회복(ROE 10%↑)과 LG에너지솔루션 배당수익 본격화 시점에 연결 배당성향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제23기 정기주총에서 배당 절차 개선(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5기 배당기준일은 26년 3월 31일로서,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내 지급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는 석유화학 사업구조 재편을 비롯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4대 성장 동력사업 확대를 통해 본원적 수익성을 개선하여 향후 더 큰 성과로 주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DPS) 추이 (보통주)

단위: 원



※ FY 2025 배당금은 이사회 승인 내용이며,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당사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정관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간의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을 통해, 정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고적 주주제안과 선임독립이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Palliser capital) 정관변경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상세 내용은 하기 및 상세 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정관 변경 조항
이사회 제안	제2-1호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제20조
	제2-2호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제14조의4등
	제2-3호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일괄 정비	제20조 등
	제2-4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제29조
	제2-5호 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기준 강화됨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하는 내용 반영	제29조
	제2-6호 정관정비	조문 번호 체계 수정 (상세 14페이지 참고)	
주주 제안	제2-7호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Palliser Capital 주주제안 (상세 15페이지 참고)	제14조의3
	제2-8호 선임독립이사 선임	Palliser Capital 주주제안 (상세 15페이지 참고)	제23조의1

### [제2-1호 (이사회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반영(상법 제542조의7)

현행	변경(案)
제20조 (이사의 선임)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사의 선임)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신설)	부칙 제4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 2-2호 (이사회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 반영(상법 제542조의14)

현행	변경(案)
(신설)	제14조의4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제1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2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4, 제1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3호 (이사회안)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조의8) 및 관련 정관 정비

현행	변경(案)
<b>제20조 (이사의 선임)</b>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제20조 (이사의 선임)</b>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b>독립이사는</b>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제22조 (이사의 보선)</b>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b>제22조 (이사의 보선)</b> ② <b>독립이사가</b>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b>제24조의1 (위원회)</b>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중략)	<b>제24조의2 (위원회)</b>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b>독립이사</b> 후보추천위원회 (중략)
<b>제29조 (감사위원회)</b>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중략)	<b>제29조 (감사위원회)</b>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b>독립이사로</b>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b>독립이사로</b> 한다. (중략)
(신설)	<b>부칙</b> <b>제3조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b>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제3항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 2-4호 (이사회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분리선임 인원 확대(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반영

현행	변경(案)
<b>제29조 (감사위원회)</b>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b>제29조 (감사위원회)</b>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b>부칙</b> <b>제1조 (시행일)</b>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5호 (이사회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 의결권 제한 강화(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반영

현행	변경(案)
<b>제29조 (감사위원회)</b>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b>제29조 (감사위원회)</b>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b>부칙</b> <b>제3조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b>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제29조(제3항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 2-6호 (이사회안) : 정관 정비]

- 정관 정비 (조문 번호 체계 수정)

현행	변경(案)
제8조의 1 (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8조의 2 (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0조의 1 (시가발행) 제10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제10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0조의 4 (동등배당) 제10조의 5 (주식매수선택권) 제12조의 1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4조의 1 (소집권자) 제14조의 2 (소집통지 및 공고) 제15조의 1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29조의 1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29조의 2 (감사록) 제35조의 1 (중간배당)	제8조의 2 (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8조의 3 (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10조의 2 (시가발행) 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0조의 5 (동등배당) 제10조의 6 (주식매수선택권) 제12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4조의 2 (소집권자) 제14조의 3 (소집통지 및 공고) 제15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29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29조의 3 (감사록) 제35조의 2 (중간배당)
(신설)	<b>부칙</b> <b>제1조 (시행일)</b>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7호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 주주 제안에 따른 정관 변경

현행	변경(案)
<신설>	<p>제14조의3(권고적 주주제안)</p> <p>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령 또는 이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회사의 지배구조, 자본 배분 정책, 임원 보상 정책 및 주주환원 정책 등 주주 및 회사 이익 보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권고적 주주제안”)할 수 있다.</p> <p>② 제 1 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 363 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이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제 18조의 방법으로 하되, 그 결과는 당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p> <p>⑤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 4 항에 따른 방법으로 가결된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이 있었던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이행 여부 및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p>

[제2-8호 (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 선임독립이사 선임]

- 주주 제안에 따른 정관 변경

현행	개정(案)
<신설>	<p>제23조의1(선임독립이사)</p> <p>① 이사회는 독립이사(본 조의 독립이사는 이 정관의 사외이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하 같다) 중 1인을 독립이사를 대표하는 독립이사(“선임독립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선임독립이사는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선임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p> <p>② 선임독립이사의 임기는 해당 독립이사의 임기로 한다.</p> <p>③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회의 소집 및 주재, 독립이사 의견 수렴 및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전달</li> <li>2. 이사회 일정, 안건 부의 제안 등 이사회 운영 관련 협의</li> <li>3. 주주, 이사회, 경영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li> <li>4.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 면담 및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주주의견 수렴 결과 전달</li> <li>5.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 전달 등 지원</li> </ol> <p>④ 이 회사는 선임독립이사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 ■ 제3호 의안(주주제안, Palliser Capital): 주주제안의 건

※ 제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상정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동 폐기됨.

### 제3-1호.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 가. 의안 제목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공개하는 내용의 건

#### 나. 의안의 요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NAV 할인율을 주요 재무지표로 포함하고, 매 분기마다 회사가 NAV 할인율을 산정 및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권고함.

### 제3-2호.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 가. 의안 제목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적인 핵심성과지표(KPI)로 연계하는 안에 대한 보상위원회 검토의 건

#### 나. 의안의 요지

회사의 보상위원회가 기존 경영진 보상 계획에 ( i ) 경영진 보상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연계보상을 도입하고 (ii)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존 경영진 보상에 관한 핵심성과지표(KPI) 중의 하나로 반영함으로써 주주 친화적 보상체계의 수립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함.

### 제3-3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 가. 의안 제목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자금을 활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정책 보강의 건

#### 나. 의안의 요지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을 기존 발표 수준인 70%의 미만으로 낮추고 추가로 확보한 자금으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여 2026.1.29.자 공시 주주 환원 정책을 보강하고, 상기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함.

## ■ 제4호 의안: 사내이사 김동춘 선임의 건

김동춘 이사 후보는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전자소재사업부장 등 첨단소재 분야의 주요직책을 수행하며 사업 실적 제고 / 미래 성장 동력 발굴 / 글로벌 고객 확대 등 당사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김동춘 이사 후보가 쌓아온 회사 주요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및 기업가치 제고 전략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 간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주요 약력 등 : 1968년생 / 남성

2018년~2019년 : (주)LG화학 고기능소재사업부장 / 상무

2021년~2022년 : (주)LG화학 반도체소재사업담당 / 상무

2023년~2024년 : (주)LG화학 전자소재사업부장 / 전무

2025년~2025년 : (주)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장 / 부사장

2026년~현재 : (주)LG화학 CEO겸 첨단소재사업본부장 / 사장

## ■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천경훈 선임의 건

### ※ 제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됨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이 기본 1인에서 2인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천경훈 후보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천경훈 후보는 국내 로펌에서 10여년 간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근무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상사법 분야에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 다수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 및 산학 활동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 자문활동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난 3년간 LG화학의 내부거래위원장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의사결정 시 적법성과 준법감시 체계 검토를 통해 법률 Risk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기업결합 심사, 자본시장 규제 등에 있어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률 전문성과 회사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 역량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 - 주요 약력 등 : 1972년생 / 남성

2010년~2015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5년~2020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0년~현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과거 3년간 이사회 출석률 : 100% (재임기간 총 29회 이사회 중 29회 참석)

#### - 과거 3년간 감사위원회 출석률 : 100% (재임기간 총 16회 감사위원회 중 16회 참석)

지난 3년간 100%의 출석률로 당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 후보자의 등기임원 겸직 현황 : 겸직현황 없음

## [과거 3년간 천경훈 후보의 감사위원회 위원 활동 내역]

연도	개최일자	주요내용	출석 여부
2023	23.04.26	2023년 1분기 외부감사인 보고, 2023년 1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출석
	23.07.26	2023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2023년 반기 재무제표(案) 보고, 2023년 상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출석
	23.10.30	2023년 3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2023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 평가 동의	출석
	23.11.17	외부감사인 지정결과 보고	출석
2024	24.01.31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3년 하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승인, 외부감사인 검토 진행결과 보고, 제23기 영업보고서 보고, 제23기 재무제표 보고	출석
	24.02.23	2023년 외부감사인 기말감사 수행결과 보고,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서(案)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案) 승인, 제2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案) 승인	출석
	24.04.29	2024년 1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案) 승인, 외부감사인 검토 진행결과 보고	출석
	24.07.22	2024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2024년 반기 재무제표(案) 보고, 2024년 상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출석
	24.10.28	2024년 3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2024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 평가 동의	출석
2025	25.02.03	외부감사인 검토 진행결과 보고, 2024년 하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제24기 재무제표 보고, 제24기 영업보고서 보고,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출석
	25.02.17	2024년 외부감사인 기말감사 수행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案) 승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서(案) 승인, 제2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案) 승인	출석
	25.04.28	외부감사인 검토 진행결과 보고, 2025년 1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감사위원장 선임(案) 승인	출석
	25.08.07	2025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2025년 반기 재무제표(案) 보고, 2025년 상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출석
	25.10.23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2025년 3분기 재무제표(案) 보고,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 평가 동의	출석
2026	26.01.28	2025년 4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보고, 2025년 하반기 경영진단 업무 보고, 제25기 재무제표 보고, 제25기 영업보고서 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출석
	26.02.23	2025년 외부감사인 기말감사 수행 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案) 승인,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의견서(案) 승인, 제2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案) 승인	출석

## ■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 수준인 70억원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당사는 '25년11월 신설된 보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보상 제도 기준, 과거 집행실적, 해당 연도의 기대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이사 보수한도를 책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등을 제외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범위 내에서

- ① 재무성과, 경영목표 달성도 등 재무성과 지표,
- ② 미래 경쟁력 강화, 미래 R&D 파이프라인 구축 등 전략적 과제 달성을 목표로 하는 Key Initiative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보상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여,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5년 이사 보수는 총 32.1억원(보수한도의 45.9%)을 집행하였으며, '26년에도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성과급의 최대 지급규모를 고려하여, 전년 수준인 70억원으로 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1. 최근 3개년 이사 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이사 보수한도	이사보수총액			영업이익(전기)
		사내	사외		
'25년	7,000	3,211	2,827	384	916,800
'24년	7,000	3,688	3,296	392	2,529,200
'23년	8,000	5,133	4,741	392	2,995,700

- 이사 보수한도 변동 내역 : '15~'23년 80억원(7명) → '24년 70억원(7명)

## 2. 보수 산정기준

대상	보수	산정기준					
사내이사	급여	1) 기본급 : 물가상승률, 사업환경, 책임의 범위와 경영난이도, 생산성 등을 종합 고려 2) 역할급 : 직무 / 직책, 전략적 중요도, 사업 경쟁강도, 사업규모 등을 종합 고려					
	상여	<p>전년도 회사의 ① 재무성과 목표 및 ② Key Initiative성과 목표 대비 달성수준을 평가하여 지급</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판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재무성과 (연급여의 0% ~ 67%)</td> <td>매출 / 영업이익 목표 및 경쟁성과 달성도</td> </tr> <tr> <td>Key initiative성과 (CEO : 연급여의 0% ~ 117%, CEO 外 : 연급여의 0% ~ 67%)</td> <td>미래 경쟁력 제고, 미래 R&amp;D 파이프라인 강화, 인재 육성(CEO 限) 등 지표의 달성도</td> </tr> </tbody> </table>	구분	판단기준	재무성과 (연급여의 0% ~ 67%)	매출 / 영업이익 목표 및 경쟁성과 달성도	Key initiative성과 (CEO : 연급여의 0% ~ 117%, CEO 外 : 연급여의 0% ~ 67%)
구분	판단기준						
재무성과 (연급여의 0% ~ 67%)	매출 / 영업이익 목표 및 경쟁성과 달성도						
Key initiative성과 (CEO : 연급여의 0% ~ 117%, CEO 外 : 연급여의 0% ~ 67%)	미래 경쟁력 제고, 미래 R&D 파이프라인 강화, 인재 육성(CEO 限) 등 지표의 달성도						
사외이사	급여	기본급 : 물가상승률, 사업환경, 책임의 범위와 경영난이도, 생산성 등을 종합 고려					

## 3. 2025년 사내이사 보수 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대상	보수	금액	지급 내역
대표이사 신학철	급여	1,887	기본급 944백만원, 역할급 944백만원 지급
	상여	-	<p>※ 재무성과 지급률 : 연 급여의 0% ~ 67% / Key initiative성과 지급률 : 연 급여의 0% ~ 117%</p> <p>1) 재무성과는 '24년 매출손익 목표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음. 2) Key initiative성과는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전략 고객을 다변화 하였으며, 사업가 / R&amp;D 리더 육성 체계를 강화하였으나, 사업 실적 적자로 지급 재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음.</p>
사내이사 차동석	급여	941	기본급 801백만원, 역할급 140백만원 지급
	상여	-	<p>※ 재무성과 지급률 : 연 급여의 0% ~ 67% / Key initiative성과 지급률 : 연 급여의 0% ~ 67%</p> <p>1) 재무성과는 '24년 매출손익 목표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음. 2) Key initiative성과는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전략 고객을 다변화 하였으나, 사업 실적 적자로 지급 재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음.</p>

# Part 2

## 주주제안 배경에 대한 이사회 의견

# 주주제안 배경에 대한 이사회 종합의견 - '25년10월 주주서한 내용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산업 내 차별화된 수익성 창출 및 성장을 지속 달성해 왔으며, 최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업데이트 및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공시 등을 통해서 합리적 자본배분 정책과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경영 정책에 부합하는 BSM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가 균형 있게 선임되어 모범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Palliser Capital"의 '25.10.21 주주서한, '26.2.9 주주제안에 대해 주주가치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25년 10월 주주서한에 대한 검토 결과, 제안배경에서 "Palliser Capital"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1) 이미 이사회 검토 후 결정에 반영하여 개선 완료 또는 조치 이행 중인 사안이거나 (2) 법률상 허용되기 어려운 사안 혹은 (3) 회사 경영상황 및 전략방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정합성이 낮은 주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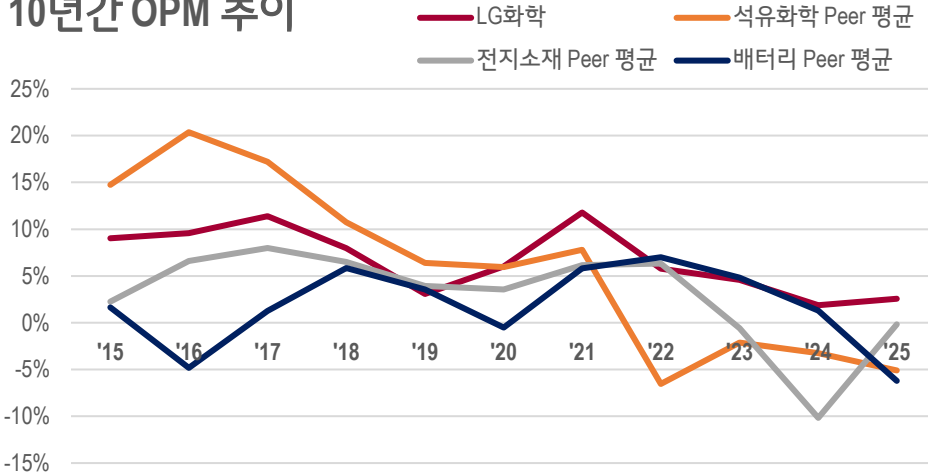
다음은 '25년 10월 주주서한 내용에 대해 상세 검토 결과입니다. ('26.2.9 주주제안 안건별 당사 권고안은 Part 1 p.6-9 참고)

<p><b>주주서한</b> (25.10.21)</p>	<p><b>[배경]</b> 거버넌스 신뢰 훼손 및 주주이익과의 불일치</p> <p><b>[제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역량 강화 要</li> <li>- 주주/기업가치와 일치하는 경영진 KPI 도입 (주가, 디스카운트, ROE 등)</li> </ul>	<p>수익률을 지향하는 자본 배분 체계의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NAV할인을 下 자사주 매입 단행</li> <li>- 기준 수익률 상회하는 ROI 투자 시행</li> </ul>	<p>LG ES 지분에 대한 행동의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주 매입 대가로 ES 지분 10% 지급</li> <li>- 장기적인 NAV할인율 관리 프로그램</li> </ul>
<p><b>이사회 의견</b></p>	<p>이사회 전문성 기반 거버넌스 제고 및 주주가치 연계 강화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SM 활용한 이사회 역량 구성 주기적 점검</li> <li>- '25.11월 보상위원회 설치, 연내 주주수익률 연계 경영진 KPI 도입</li> <li>- '26.2월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li> </ul>	<p>성장성과 재무건전성, 주주가치 제고 균형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펀더멘털 및 재무역력 개선 동반 하에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주주가치 제고 추진 : 現 주요 사업 부진 및 신용등급 하향 下, 미래성장투자 및 재무건전성 유지 최우선</li> <li>- EBITDA 회복 '28년 기점으로, 안정적 DPS 증가와 함께 자사주 매입/소각 검토 계획</li> <li>- IRR 10%(=WACC) 上 既 적용 중</li> </ul>	<p>ES 지분 연계 주주환원 공표('26/1/29) 및 활용 계획 주기적 재검검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 주식의 미래 성장가치(EV/ESS/로봇 등) 고려 점진적 매각 통한 잔여가치 훼손 최소화 및 매각 대금의 균형적 자본배분 활용 필요</li> <li>- Palliser 2가지 案은 법률 상 적용 불가하며 지분 10% 일시 유동화 따른 오버행 이슈, 주주간 교환비용 평가 공정성 이슈 등 초래</li> </ul>
<p><b>운영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치 제고계획' 주기적 이행점검 : ES지분 중장기 활용 이행 사항, ROE 실적 등 이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결과 공시 예정</li> <li>□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기능 강화 :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선임('26.2월)</li> <li>□ 주주 소통 고도화 : 경영진 중심의 소통 구조에서, 이사회 차원의 주주소통으로 확대</li> <li>□ 경영진 책임 경영 강화 : 주주수익률 연계 KPI도입</li> </ul>		

# 실적 Review :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 기반,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성과 창출



## 10년간 OP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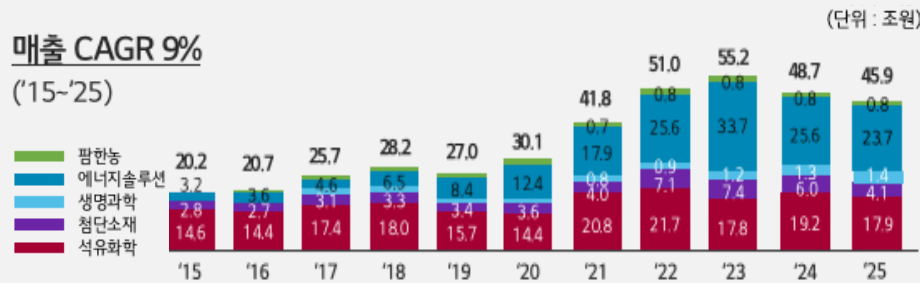
✓ **석유화학 구조적 공급 과잉, EV Chasm 장기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업황 부진과 열악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각 산업군별 Pure Player 대비 차별화된 성과 지속 창출 중**

- 전지/전지소재, 바이오 사업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 '21년~ 석화 Downcycle 진입으로 Peer 실적 악화 불구 안정적 수익 창출
- 신성장동력 기반 고수익/고성장 사업구조로의 사업체질 개선 노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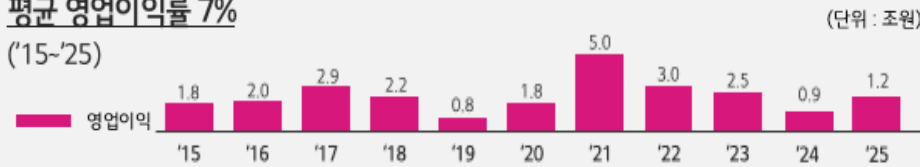
✓ '25년 매출은 10년 전 대비 2.3배 성장했으며(CAGR 9%) 견실한 포트폴리오 기반 1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7% 달성

- 석유화학 매출 비중 10년 전 70%↑ 대비 '25년 40% 미만으로 감소
- 십 여년간 연구개발/사업성으로 2차 전지 및 전지소재 비중 확대

## 매출 CAGR 9% ('15~'25)



## 평균 영업이익률 7% ('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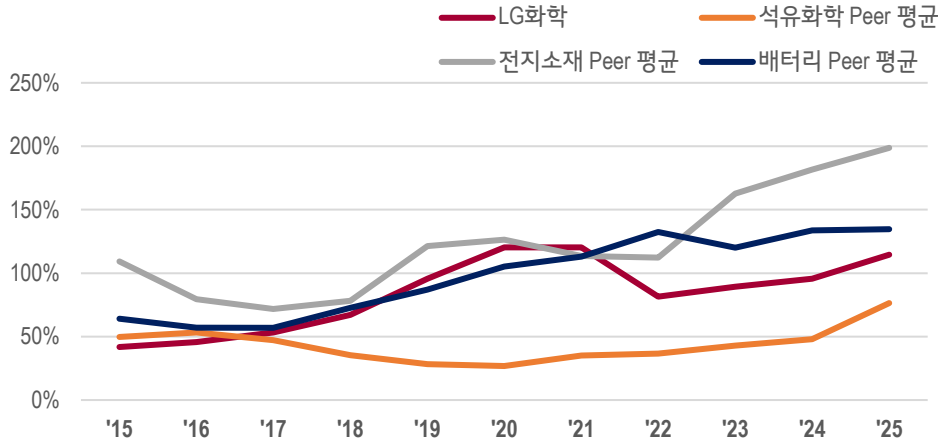


\* 연결 기준

\*\* 매출: '19년부터 현 조직 기준 및 일부 사업 중단/매각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실적 소급하여 작성 ('19년- LCD편광판 제외, '21년- 편광판소재/필름 제외, '24년- 수처리사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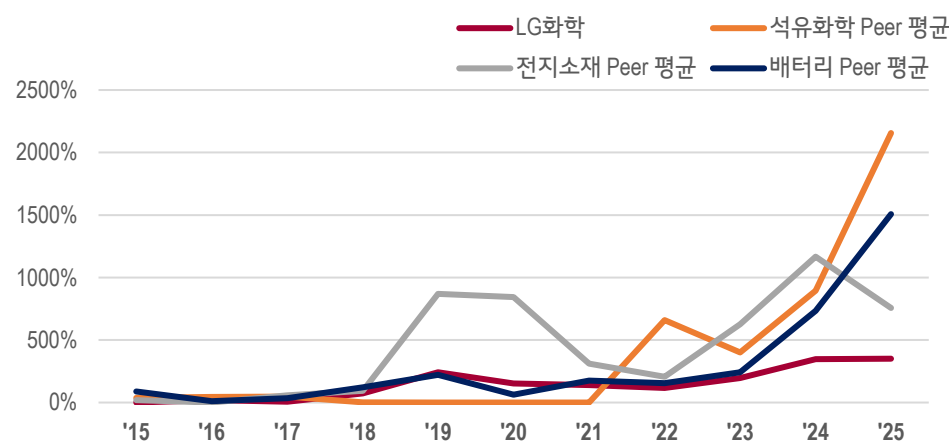
# 재무지표 Review : 누적된 경영성과 기반, 상대적으로 견조한 재무건전성

## 10년간 부채비율 추이



- ✓ 당사는 과거 무차입 경영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15년 이후 배터리 설비투자 확대, '21년부터 전지소재 등 신성장동력 선제적 투자 집중하며 차입 규모 지속 증가해 옴.
- ✓ 현재는 복합 포트폴리오 기반 안정적 현금창출능력으로 재무안정성 관리 중이며, 석유화학 Peer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부채비율이나, 전지소재/배터리 Peer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 유지

## 10년간 순차입금/EBITDA 추이



※ EBITDA 적자인 경우, 0%로 간주 (Ex: 엘앤에프 '23년-'25년, SK이노베이션 '20년)

- ✓ 석유화학 구조적 수급 악화 따른 영업적자 누적, 배터리/전지소재 실적 악화 대비 증설 자금 투입 지속되며 최근 5년간 Peer 업체 순차입금/EBITDA 급격한 상승 추세
- ✓ 당사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기반 Cycle 민감도 상쇄, 철저한 재무관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재무건전성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력사업 업황 부진 불구 성장 위한 집중 투자 시기인 점 고려하여 신용등급 하향 추세(\*)
  - Moody's : A3 Negative → Baa1 Negative('24년말) → Baa2 Stable('25년말)
  - S&P : BBB+ Negative → BBB0 Stable('25.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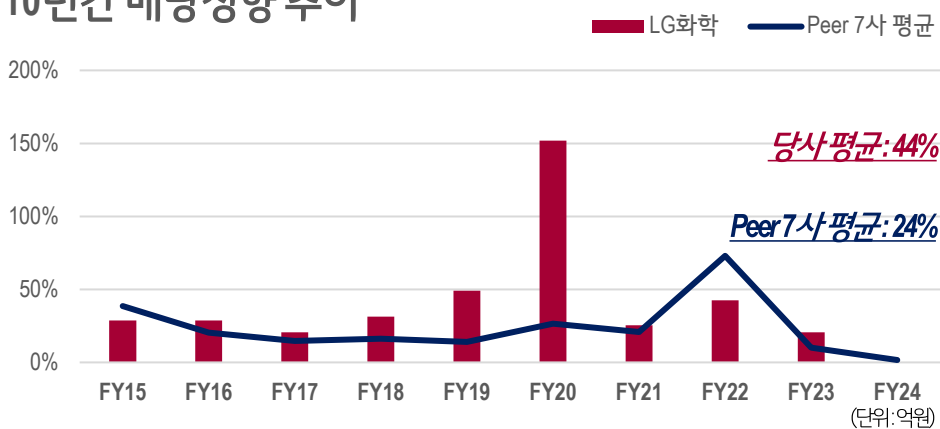
→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 투자와 함께 **신용등급 방어 위한 '(Net) Debt / EBITDA' 지표 관리 지속 필요**

※ 석유화학 Peer: 롯데케미칼, 대한유화('25년: 재무실적공시前, 대상기업에서제외) / 전지소재 Peer: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 배터리 Peer: SK이노베이션, 삼성SDI

(\*) 국내신평 3사 기준, 당사 AA+로 업계 상위권 유지 중 (삼성SDI 및 SK이노베이션: AA, 롯데케미칼: AA-)

# 주주환원 Review : 어려운 업황 불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실현

## 10년간 배당성향 추이



배당총액	3,313	3,681	4,001	4,601	1,536	7,784	9,353	7,831	2,743	787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11,530	12,811	19,453	14,726	3,134	5,126	36,698	18,454	13,378	Δ6,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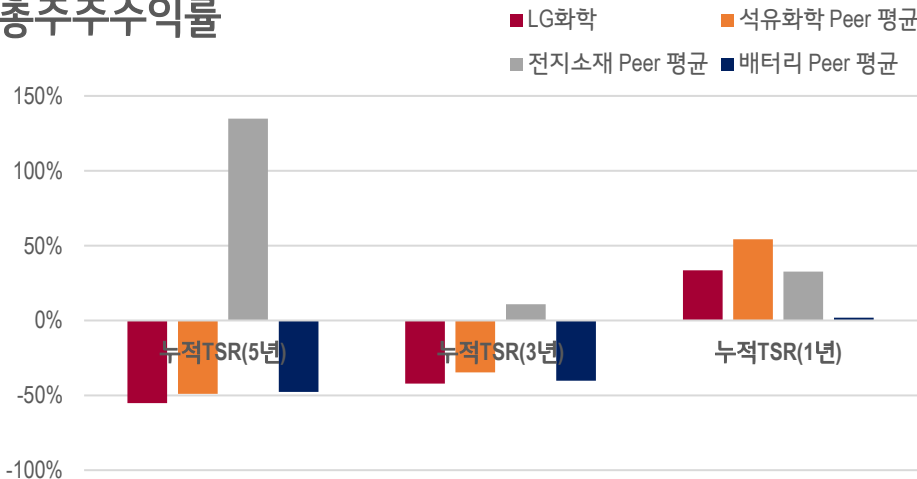
※FY25의 경우, 일부 회사만 배당 결정 공시 완료하여 기준시점에서 제외

- ✓ 지난 10년간 연결 지배주주순이익 대비 평균 배당률 44%, 대부분 기간 동안 **당사 배당성향은 동종업계 평균 상회**
  - 업황 악화 따른 체질 개선 투자 시기에도 최선의 배당정책 추진 : 신성장 동력向 적기 투자 집중 위해 FY23 부터 20%로 조정
  - FY24 연결지배주주 순이익 적자 불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차원에서 배당금 지급 (DPS 1천원)

- ✓ 4대 성장동력 성과 기반 수익성 회복(ROE 10%↑)과 LG ES 배당수익 본격화 시점, **배당성향 30%로 확대 계획**

- ✓ 향후 5년여간 LG ES 보유 지분율 70%까지 유동화 연계, 이중 최소 10%는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 & '28년 기점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검토 계획
  - FY25 : ES 매각 대금의 세후 현금 유입액 10% 활용 (DPS 2천원)

## 총주주수익률



※누적 TSR: 총주주수익률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총배당금 지급액) / 기초주가, 기말주가의 경우 '25년말 적용

- ✓ 석유화학 구조적 공급과잉 지속, EV Chasm 우려 확산되며 '23년 하반기부터 Peer 주가 하락

- ✓ Peer 대비 견조한 경영성과, 재무지표, 배당성향 보유 불구 석유화학/배터리 업계와 과거 누적 TSR 유사 수준이며 **당사 복합 기업으로서 양대 사업 업황 악화 영향 중첩되며 주가 조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 전지소재株, 후발산업 특성상 초기 성장 단계에서 주가 상승폭 확대)

- ✓ 다만 최근 석유화학 사업 재편 기대감 및 저평가 섹터 수급 상승으로 당사 주가 Bottom-out하며 '25년말까지 1년간 누적 TSR은 당사가 비교적 우위

# 제안 주주의 “LG화학 가치 격차 확대 요인 주장”에 대한 당사 상세 의견

## 1 LG화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훼손 및 주주 이익과의 계속된 불일치

### 주주 제언 내용

#### [이사회 역량 강화]

- 경영 전문성 결여 학계 출신 이사, 국제적 전문성 부족 / 핵심 성장 사업 경험 부족  
포트폴리오 관리 및 자본배분 경험 제한적 / 주주권익 보호 인사 부재

### 당사 의견

- 총 7인의 이사는 8개 Skillset(재무·회계, 금융·자본시장, 법률·정책, 리스크관리, 경영·리더십, ESG, 글로벌, 산업·기술)에서 전문성, 다양성 및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① 재무·회계 ② 법률 ③ 기업경영 ④ 산업전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현업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선정하여, BSM 활용한 이사회 역량구성을 주기적 점검 중에 있음.  
특히 조화순 이사의 경우 글로벌 통상정책·거버넌스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Global Trend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사 ESG 전략 수립 등 기업 경영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이며, 이현주 이사는 바이오매스, 탄소중립, 친환경 등 분야를 폭 넓게 연구하고 있는 촉매 전문가로, 당사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방향성, 신사업 검토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는 등 기업경영/국제적 전문성/산업기술 전반의 풍부한 Insight 기반 이사회에 높은 기여 증으로, 관련하여 사외이사 전문성과 역량을 부정적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금번 2월에는 이사회 독립성과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조화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사외이사과 주주간 거버넌스 미팅 등 구체적인 소통 방안을 연내 마련하며 현재까지의 경영진 중심 투자자 소통 방식에서, 사외이사 포함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

# [참고] 이사회 Board Skills Matrix 및 세부 역할

분류	이사	재무·회계		법률		기업경영			산업전문
		재무·회계	금융·자본시장	법률·정책	리스크 관리	경영·리더십	ESG	글로벌	산업·기술
사내이사	신학철 <sup>1)</sup>	○	○		○	●	●	●	●
	김동춘 <sup>2)</sup>	○	○		●	●	○	○	●
	차동석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권봉석	○	○		●	●	○	●	○
사외이사	이영한	●	●	○	○	○	○		
	천경훈	○	●	●	●		○	○	
	조화순			○		○	●	●	●
	이현주				○		●		●

\* 평가 기준  
 - ● : 주 전문성 보유  
 - ○ : 부 전문성 보유

\*\* 역량별 정의  
 [재무·회계] 재무보고·내부통제·자본구조·투자 타당성 검토 및 재무 리스크 관리  
 [금융·자본시장] 투자·M&A·자본조달 관련 의사결정 시 기업가치, 규제, 이해관계자 리스크 검토  
 [법률·정책]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을 고려,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준법 체계를 검토  
 [리스크 관리] 사업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경영·리더십] 경영진 또는 임원으로서 리더십 경력  
 [ESG] ESG 전략, 공시 및 규제 대응, 관련 리스크 요인 점검  
 [글로벌] 다양한 지리적, 정치적, 규제적 환경에서의 사업 / 해외 경험  
 [산업·기술] 화학 산업의 기술·규제·안전·환경 리스크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관련 안건 검토

1) '26.3월 주총 시 사임 예정    2) '26.3월 주총 시 신규 선임 예정

## ■ 사외이사 전문성 활용 현황

구분	주요 전문성	주요 내용
이영한	재무·회계, 금융·자본시장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한국기업평가사에서 Senior Analyst로 근무하며 회계감사 및 세무, 경영컨설팅, 신용평가 및 사업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시장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재무, 회계, 세무, 경영평가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겸 자유융합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IFRS, 외부감사제도, 내부통제 관련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보고·내부통제·자본구조·투자 타당성 검토 및 재무 리스크 관리에 기여 중임.
천경훈	금융·자본시장, 법률·정책, 리스크 관리	국내 로펌에서 10여년 간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근무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듀크대 로스쿨 졸업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바 있음. 현재 상사법 분야에서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 다수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분야 자문활동도 수행 중임.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기업결합 심사, 자본시장 규제, 준법감시 체계 등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
조화순(女)	ESG, 산업·기술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로서 정치학자 최초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책학부) 정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거버넌스 연구를 통한 높은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 취득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글로벌 통상정책 및 경제 거버넌스·과학기술 Insight를 바탕으로 ESG, 지속가능경영의 Global Trend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성 수립 자문에 기여 중임.
이현주(女)	ESG, 산업·기술	KAIST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바이오매스·탄소중립·친환경 분야 등을 폭넓게 연구하는 촉매전문가로 석유화학 공정 및 Sustainability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촉매·Sustainability 관련 사업 및 전략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 및 기술 트렌드에 대한 자문에 기여 중임.

## ■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역할

구분	주요 전문성	주요 내용
신학철 (사임 예정)	경영·리더십, 글로벌, ESG, 산업·기술	세계적 혁신 기업인 3M 수석 부회장 출신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지난 7년간 LG화학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며 신성장동력 중심 포트폴리오 고도화 지속 및 R&D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당사 성장 확대 및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김동춘 (신규 선임)	리스크 관리, 경영·리더십, 산업·기술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전자소재사업부장 등 첨단소재 분야 주요직책을 수행하며, 실적 제고 / 성장동력 발굴 / 글로벌 고객 확대 등 경쟁력 강화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LG화학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차동석	재무·회계, 금융·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경영·리더십	서브원 및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FO 등 재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당사 사업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과 재원 조달 등에 집중해 왔음. 향후에도 성과 및 Risk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권봉석	리스크 관리, 경영·리더십, 글로벌	LG전자에서의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최고 경영자의 식견과, 신사업기획, 경영관리, 전략, 생산 등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전문성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사회 일원으로서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의사결정에 기여 중임.

# 제안 주주의 “LG화학 가치 격차 확대 요인 주장”에 대한 당사 상세 의견

## ■ '26년 3월 주총 이후 이사회 구성(案)

성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 경력 / 현 직책	임기
김동춘	대표이사 (CEO)	경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前 (주)LG화학 고기능소재사업부장, 반도체소재사업담당 (주)LG화학 전자소재 사업부장, 첨단소재사업본부장 '26~현재 : (주)LG화학 CEO겸 첨단소재사업본부장 / 사장	'29년 3월 (신규 선임)
권봉석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前 (주)LG전자 미디어사업부장, MC상품기획그룹장, HE사업본부 본부장 (주)LG전자 대표이사 '21 ~현재 : (주)LG 부회장	'28년 3월
차동석	사내이사 (CFO)	경영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前 (주)엘지 재경팀장, (주)엘지화학 정도경영TFT 진단1담당 (주)서브윈 CFO '19 ~현재 : (주)엘지화학 CFO	'27년 3월
이영한	사외이사 * 분리선출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前 슈피겐코리아(주)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 現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장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	'27년 3월
천경훈	사외이사 * 분리선출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9년 3월 (재선임)
조화순 (여성)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보상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前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센터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기아 사외이사	'28년 3월
이현주 (여성)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前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現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28년 3월

\* 現 감사위원회 위원장 : 조화순 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이영한 이사 → 3/31 주총 후 변경 예정

# 제안 주주의 “LG화학 가치 격차 확대 요인 주장”에 대한 당사 상세 의견

## 1 LG화학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 훼손 및 주주 이익과의 계속된 불일치

### 주주 제안 내용

-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는 경영진 KPI 도입]
- NAV Discount, Peer 대비 주가/TSR 연동 필요
  - ROE 목표를 핵심 재무지표로 연계 필요

### 당사 의견

- '26년 내 주주/자본 수익률(\*)과 연계한 경영진 KPI 도입 계획이며, 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  
(\*) 주가 상승률, 경쟁사 대비 주가 변동, TSR, ROE 등 다양한 평가지표 검토 진행 중
- 단기 실적주의 탈피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항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주주와 경영진 이해관계 일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기대
- NAV 할인율은 기업가치와 주가 간 괴리를 설명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산정 방식이 단일하지 않고 시장 멀티플, 금리, 투자 심리, 자회사 주가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 KPI에 도입 시 경영 성과 관리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적합한 KPI가 아님.
- 단, NAV 할인율에 대한 주주분들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보유지분 중장기 활용 계획이 최대한 당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지속 이행 점검해 나갈 계획임.

## 2 수익률을 지향하는 자본 배분 체계의 부재

### 주주 제언 내용

[과도한 NAV 할인을 下 자사주 매입 단행]

### 당사 의견

- 자사주 매입/소각 통해 주당 NAV 개선효과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계속기업 전제로 한 지속 경영 관점에서, 사업 Fundamental과 재무 여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기업/주주가치 제고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최근 석화 시황 부진 장기화, 미 EV 수요 부진 등으로 주요 사업 경쟁력 약화 및 현금창출능력 저하 누적으로 인해 신용등급 또한 하향 추세이며, 당분간은 회사의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신사업 M&A 등 미래 성장 투자(\*)와, 신용등급 방어 위한 안정적 재무지표(net Debt / Ebitda) 유지가 우선시 되어야함.
- (\*) e-Mobility 소재, 반도체소재 등 Inorganic growth 위한 조 단위 투입 예상 & ROI 10% 타겟
- FY24부터 배당가능재원 없었으나, 보유자산 매각 자금 일부를 활용하여 최소 수준의 현금배당 실시 중이며, 향후 미래 성장 투자 및 석유화학 사업구조 재편 기반 고수익/고성장 사업구조 전환을 통해 EBITDA 회복이 가시화되는 '28년을 기점으로, 안정적 DPS 증가와 함께 ES 지분 유동화 재원을 포함한 추가 재원을 활용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검토할 계획

※ 위 계획은 현재 시장 상황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한 것이며,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및 중장기 계획의 변화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 2 수익률을 지향하는 자본 배분 체계의 부재

### 주주 제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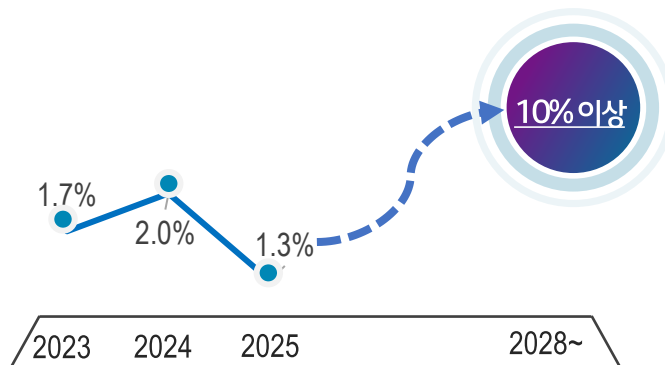
[기준 수익률 상회하는 ROI 투자 시행]

### 당사 의견

- 투자 경제성 검토 시, 당사 WACC을 상회하는 수준인 IRR 10% 이상을 최소한의 재무적 요구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 다만, 사업 영위 과정에서 업황, 경쟁환경, Global 정세 등 외부 변수로 인해 실제 달성 여부는 변동 가능함.
- 당사는 '25년부터 수시 Gate 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 승인 이후에도 전반적인 시황 변동을 재점검하여 투자 지연/중단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음.

[참고] LG ES 제외 기준, ROE(\*) 실적 및 목표

(\* 개별 투자 건의 합산, 기업 투자 성과 누적 개념으로 자본수익률 목표지표로 선정 및 관리 중)



※ 10% 목표 달성 계획

- ① 4대 성장동력 중심 사업 고도화 통한 수익성 개선
- ② 저성장/저수익 자산 합리화, 석유화학 사업재편 등 적극적인 Portfolio Rebalancing
- ③ 선별적 자본 투입 통한 Capex Peak-out
- ④ 중장기 ES 배당수익 발생 및 점진적 규모 증가 등 순이익 개선
- ⑤ ES 지분 활용계획과 연계하는 주주환원(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이행

## 3 LG ES 지분에 대한 행동의 부재

### 주주 제언 내용

[자사주 매입 대가로 ES 지분 10% 지급(공개매수)]  
- LGES 주식을 대가로 활용하여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실행

### 당사 의견

- ES 주식을 교환대가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은 교환 공개매수 방식의 거래가 필요하나, 공개매수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규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시 수량에 미달하여 응모가 되면(부족 비율 30% 이상),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위반하게 될 수 있음. 한편,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의 거래에 대한 선례가 전무함.
- 또한, 당사의 다양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개별 주주의 선호도와 입장이 매우 복잡적이며,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이익 공평성 관점에서, 당사 주식과 ES 주식의 가치 평가 및 교환비율의 공정한 결정 기준 등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한편, ES 지분 10%를 일시에 자사주 매입의 현물 대가로 활용 시, 대규모 물량의 일시 유동화에 따른 오버행 이슈로 인해 보유 지분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 됨. 당사는 향후 5년간 ES 지분 10% 매각 연계 주주환원계획을 공시했으며(26/1/29) 금융시장의 수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며 전략적으로 매도해 나갈 계획임.

## 3 LG ES 지분에 대한 행동의 부재

### 주주 제안 내용

[장기적인 디스카운트 관리 프로그램]

- LGES 주식을 소량으로 분할하여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여 LG화학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입

### 당사 의견

- 기한을 두지 않는 장기적인 ES 주식 상시 매각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로 인해 실행 불가능함.  
상기 규제상 거래기간 개시 전 30일 및 거래기간 종료일부터 새로운 개시일까지 30일 동안 제도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함.  
일정 매도가격 주문 전제로 지속 매각 시,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 왜곡이 문제되고,  
해당기간 동안 미공개 내부정보 발생 시, 내부자 거래 규제 문제로 거래 중단이 불가피함.

- 한편, 미래 가치 평가에 근거한 전략적 자산의 보유 또는 처분 결정은, 각 시점의 사업전망, 시장/금융환경 및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기에, 현 시점에서 자회사 주식을 무기한적으로 매각하는 결정은 전략적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려움.

**“당사 경영진은 ES 보유 지분 유동화를 기반으로 (1) 미래 성장 투자 (2) 재무건전성 개선 (3) 주주가치 제고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며, 주주환원 비중 확대 등 정책 재점검 및 5년 이후 보유지분을 70% 미만으로의 추가 매각 검토 등 주주이익을 위해 ES 지분 가치가 당사 주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하여 시장과 소통할 계획”**

# [참고] 중장기 Capital Allocation (26.1.29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시공시' 등 신규 Update 내용 반영)

- 투자와 재무건전성, 주주환원의 균형 잡힌 자본 배분 전략 추진을 통한, 기업/주주가치 제고
  - ① 미래 성장 및 근본적 사업 경쟁력 강화 위해, 우선순위<sup>1)</sup> 기반 선별적 자본 투입
  - ② 순차입금 유지/감소를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하여 안정적 신용등급 유지
  - ③ 사업 성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추진

**OCF + 자산 유동화 = 투자 + 재무건전성 제고 + 주주환원**

## 재무건전성 제고

최소 OCF 10% 우선적으로 활용

## 자산 유동화

향후 약 5년여간 ES 보유 지분을  
 약 70%까지 유동화 계획:  
 성장성과 재무건전성, 주주가치 제고 균형 도모

## 주주환원

- 현재 연결 배당성향 20%<sup>2)</sup>
  - 향후 4대 성장동력 성과 기반 수익성 회복(ROE 10%↑)과 ES 배당수익 본격화 시점에 연결 배당성향 30%까지 확대
- ES 지분 매각 후 확보 자금(세후 현금 유입액)의 최소 10%는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sup>3)</sup>
  - EBITDA 회복 가시화 전망하는 '28년 기점으로, 안정적 DPS 증가와 함께 자사주 매입/소각 검토 계획

보유 지분가치 훼손 최소화 限, ES 지분을 70% 미만까지 유동화 규모 확대 여부,  
 주주환원 비중 확대 여력 등 상황과 여건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고 ES 지분 활용 이행사항에 대해 공시할 예정

1) IRR > WACC(=10%)+Risk premium, 경쟁우위확보 가능성/시급성/Feasibility 평가 → e-Mobility 소재, 반도체소재 등  
 2) 당사 배당정책상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의 중 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 기준.  
 단 FY2024 / 2025의 경우, 배당정책상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환원 차원에서 각각 주당 1,000원 / 2,000원 배당 결정  
 3) FY 2025 : ES 매각 대금의 세후 현금 유입액 10% 활용

# 감사합니다

## Thank you

WeConnectScience

 LG화학

0733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Tel. 02-3773-1114 / [www.lgchem.com](http://www.lgchem.com)

Copyright © 2026 LG Chem. All Rights Reserved.